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합니다



CONTENTS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의 국방을 준비합니다

국내외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04
국방의 여러 분야에서 효율성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06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보완하였습니다	07
미래 지향적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08

더욱 강하고 정예화된 군으로 도약합니다

확고한 한·미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합니다	12
정보·기술 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합니다	14
북한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합니다	16
육군은 부대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하여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18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합니다	20
공군은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합니다	22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24

보다 실용적인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갖춥니다

국방자원 및 시설을 경제적으로 운영합니다	28
전문화된 우수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병역제도로 발전시킵니다	31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장병복지를 구현합니다	35
병영, 복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36
미래전에 대비한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을 구축합니다	38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선진화합니다	39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합니다	40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이 필요합니다

국방개혁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42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43

MCORE

국방개혁으로 더 강한,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속의 당당한 군을 만들어 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군이 있습니다.
오늘의 평화를 지키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는 힘!
이제 국방개혁으로 구현합니다.



Change & Challenge

PART 1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의 국방을 준비합니다

국가정세와 국제적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방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합니다.



국방개혁 추진 경과

-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 '05. 12.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06. 12.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공포 : '07. 3.
-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완 : '08. 3 ~ '09. 6.
 - 군내 검토/심의 회의
 - 국회 보고 및 의견수렴
 -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한 의견수렴
 - * 전문가 토의, 예비역 자문회의, 공청회 등
 -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국방개혁위원회 심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 2~3년 주기로 보완하고 있으며, 최근 급변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발전시켰습니다.

- 우리 군은 지난 60여 년 동안 6·25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며, 자랑스러운 국가변영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해 왔습니다.
- 또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우리의 안보상황은 재래식 군사위협 외에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에 국방부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보완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갑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06. 12. 28) 5조 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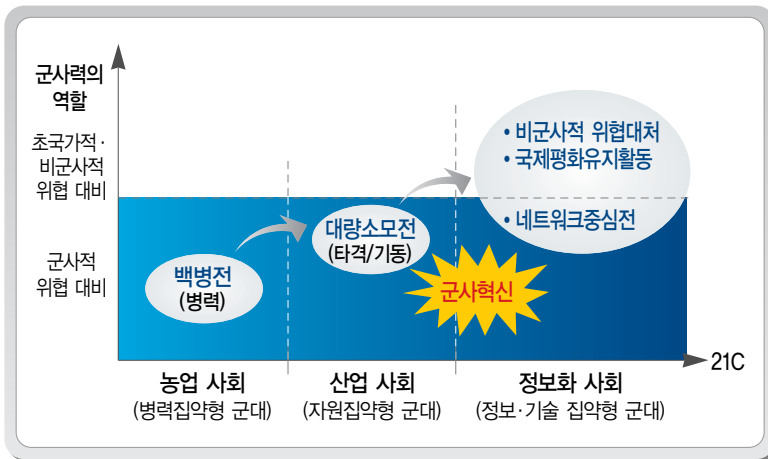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 군사관계 변화 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

국내외 안보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다양한 위협요인과 전쟁양상의 획기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군의 역할 확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 정보·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미래전의 모습도 변화

미래전은 정보·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전쟁 수행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또한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대테러전 및 국제평화유지작전 등도 요구됩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구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2. 북한 핵·미사일 등 군사위협 증대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증가시키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Q : 네트워크 중심전(NCW)이란 무엇인가요?

A : 네트워크중심전이란 IT·네트워크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전장정보를 공유하고 지휘속도를 증대시켜 센서가 찾아낸 표적을 타격수단에 빠르게 전파함으로써 적이 아군을 타격하기 전에 적을 신속히 공격하는 전쟁수행개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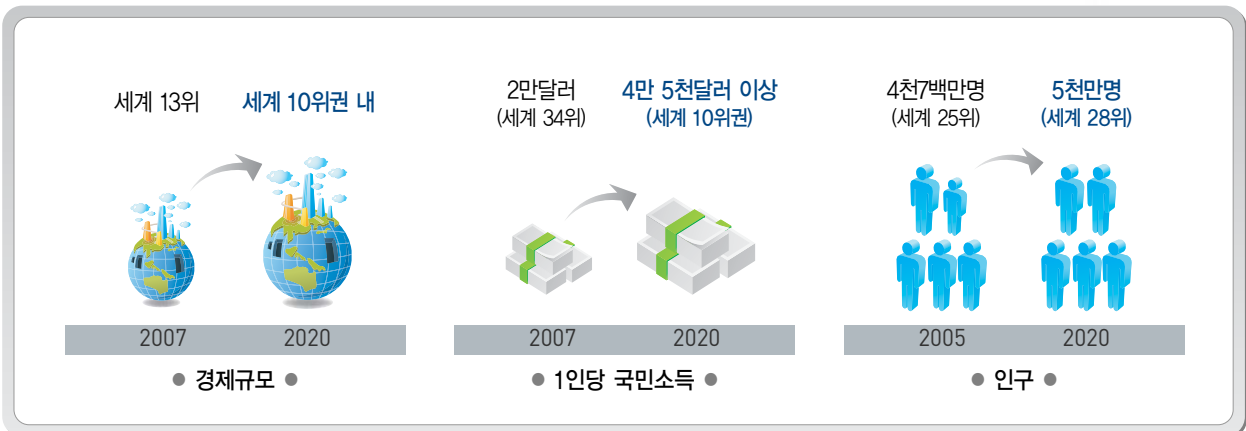
3.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략권 전환과 관련하여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체제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긴밀한 한·미 연합작전 수행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제대별·기능별로 더욱 세분화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4.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제 평화유지군 역할 확대 요구

국방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에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할 것이며, 높아진 국가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위한 요구 역시 커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는 등 이러한 역할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 미래기획위원회, 2008〉

국방의 여러 분야에서 효율성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비하는 임시방편식 처방을 해 오며 따라 여러 분야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1. 병력 위주의 군구조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위주의 양적인 규모 유지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구조에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2. 비효율적인 국방운영

각 군이 유사·중복기능부대를 별도로 편성하여 자족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발전된 민간분야를 국방운영에 도입·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인재양성 및 교육체계 정비 필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우수한 인력의 충원이 제한되어,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충원-교육-활용’의 맞춤형 인력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군 사기 및 복지증진 대책 미흡

국가경제 발전에 따라 민간 복지수준은 크게 향상된 반면, 군의 복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군인의 자긍심과 사기 양양을 위해 종합적인 군 복지대책의 수립이 시급합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보완하였습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단순히 현재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의 보완이 아니라 통일 이후까지를 내다보고 군의 역할을 생각하는 큰 그림입니다.

1.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비소요 반영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 가능한 전력체계로 보강하고,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계 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군사작전체계가 가능하도록 지휘구조를 보강합니다.



2. 합동성 및 3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군사력 구조 조정

소요판단의 근거가 되는 군사전략 및 합동전장운영개념을 정립하여 합동 전투력 발휘에 우선성을 두고 군구조 및 전력증강 소요를 판단하였습니다.

3. 국가위상 제고에 따라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군사력 소요를 반영

과거에 외국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 베푸는 나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합니다.



4. 국방경영의 경제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획기적 방안 강구

국가충력전 개념하에 선진화된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각 군의 유사·중복 기능부대는 통합 및 슬림화합니다.

5.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발전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

국방개혁 소요재원을 합리적으로 재판단하였으며, 국방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로 새로운 동력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군인복지 종합대책 등을 수립·시행합니다.



미래 지향적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국방환경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Hard Power와 Soft Power가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방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질적인 도약을 병행합니다.

1. 새로운 연합방위체제하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합니다.
2. 전투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구비하여 전투즉응성을 향상시키고 병력과 장비를 정예화합니다.
3.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 및 비대칭 위협에 대처 가능한 전력구조를 구축합니다.
4.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여 전투능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5.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고, 실질적인 동원체제를 확립합니다.
6. 민간자원 활용 확대, 유사·중복 기능부대 통합 및 조직 슬림화를 통하여 국방경영의 경제성·효율성을 제고합니다.
7. 미래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재 양성 및 교육체계를 구축합니다.
8. 병영환경 및 복지를 국가 경제발전에 상응하도록 선진화합니다.
9. 국방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국방과학기술 기반·역량을 선진화합니다.



변화의 바람을 넘어 더 새롭게! 국방개혁을 통한 ‘정예화된 선진강군’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지킵니다.

찰스 다윈은

“가장 강한 종(種)은 힘이 세거나
몸집이 큰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 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軍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군대는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수록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Strong & Advanced!

PART 2

더욱 강하고 정예화된 군으로 도약합니다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21세기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나아갑니다.



MCORE

우리 군은 미래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기술 집약형의 군사력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정예화된 선진 강군'으로 변화합니다.

●● 북한은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면서도 비대칭 전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확고한 한·미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획기적인 정보·기술 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전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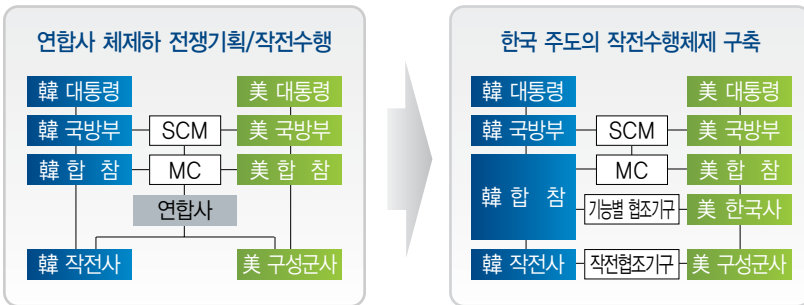
●● 또한, 북한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증강합니다. 아울러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제 평화 유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확고한 한·미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반도의 연합작전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합참 주도의 연합작전수행과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사지휘구조를 만들고 한·미간에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흔들림 없이 대처합니다.

1. 한국군이 주도하는 작전수행체제 구축

한국군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하에 한국군 주도의 작전수행체제를 구축합니다. 한·미간의 효율적인 연합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군사위원회(MC) 등 기존의 전략적 대화 채널은 지속 유지하고, 한국 합참과 美 한국사 간의 작전수행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보·작전 등 각 기능별 협조기구를 운용하며, 각 작전사 및 제대별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 전환되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및 작전수행 능력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안보협의회의)

한·미 양국의 주요군사정책 협의 조정 기구로서 국방장관 수준에서 주요 안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MC (Military Committee, 군사위원회)

한·미 양국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양국간 주요 군사정책과 전략지침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한국 합참과 美 한국사에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하달하는 기구로서 한·미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회의

Q : 전작권 전환 후 美 증원전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요?

A :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 증원전력은 작전계획에 근거하여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전력이 전개될 것입니다. 즉,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연합전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전력의 지휘체계만 한국군 주도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2.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및 합동성 강화

• 합참 주도 작전수행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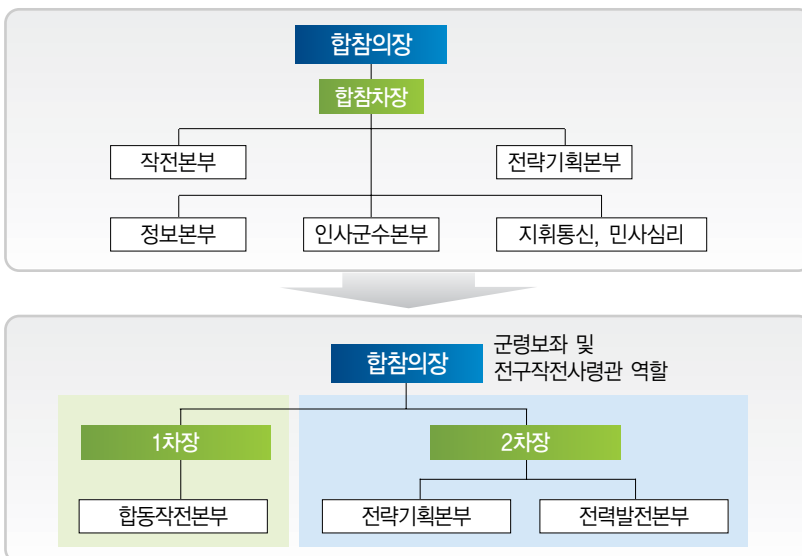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합참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전·평시 모든 작전을 지휘하게 됨에 따라 합참의장이 전구작전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참의 편성과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즉, 한반도 전구작전환경을 고려하여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지 않고, 합참의장의 작전지휘와 군령보좌 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2명의 합참차장을 편성하였습니다.

• 작전수행(War-Fighting)에 전념할 수 있는 기능 보강

1차장 예하에는 합동작전본부를 美 한국사령부와 대칭적 구조로 편성하여 원활한 작전지휘 및 효율적 연합작전 수행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합동성 증대를 위한 참모부서 보강

2차장 예하에는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소요를 결정하는 전략기획본부와 미래전에 대비한 합동개념 발전, 합동실현, 연습훈련 등 합동성 발전 업무를 전담하는 전력발전본부를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전지휘란?

작전 임무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하는 권한으로서 작전 소요 통제, 전투편성,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을 말하며, 행정 및 군수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군령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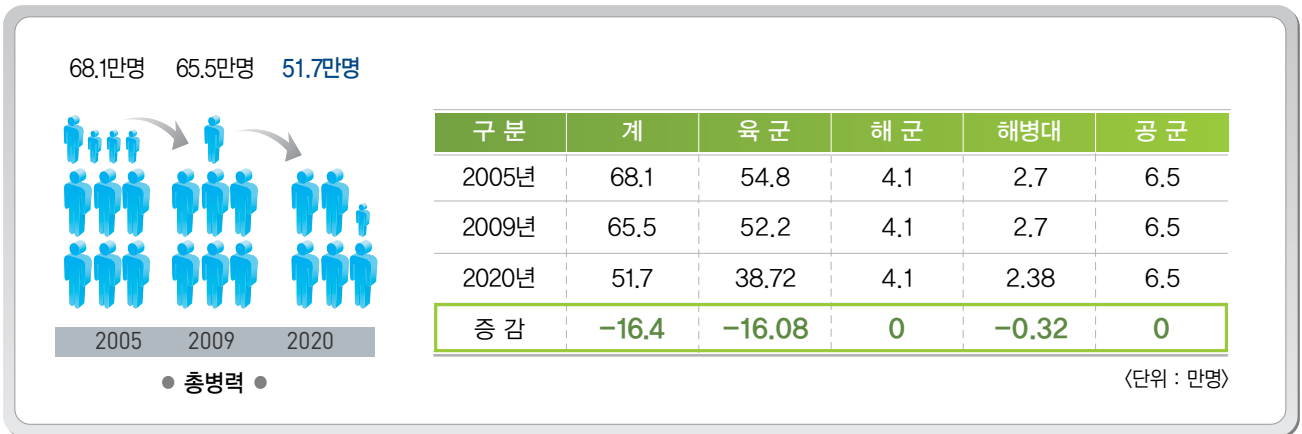
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용병 기능으로서 군사전략 기획, 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제기 및 작전계획의 수립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운용 등을 의미한다.

정보·기술 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합니다

우리 군은 안보환경과 전쟁양상 변화에 따라 미래 합동전장운영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보·기술 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전환합니다.

1. 전투임무 위주로 병력구조 조정

2005년 개혁초기에 68.1만명이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정예화합니다. 이를 위해 전투임무 이외의 비전투 분야 인력을 최소화하고 유사조직과 기능의 통·폐합을 통하여 절약된 병력으로 전투부대의 완전성을 높여 전투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Q :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상군 병력을 조정시 문제 없나?

A : 미래전 양상은 대량소모전 개념에서 네트워크중심 환경 하 효과중심작전으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은 병력규모는 조정되더라도 간부비율을 높여 군을 정예화하고, 전투부대 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하여 즉각 전투수행능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육군은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를 확충하고, 해·공군 또한 합동성을 강화한 첨단전력을 보강하여 지상작전 지원능력을 증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총체적인 전투력은 현재보다 월등히 향상되므로 지상군 병력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전투임무수행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투부대 구조 개편

지금까지는 평시에 감소된 편성을 유지하다가 전시가 되면 증원하여 완편하는 개념이었으나, 앞으로 상비부대는 평시부터 정예화된 인원과 우수한 장비로 완전편성하여 즉각 전투태세가 가능하도록 완전성을 보장하고, 지휘계선을 축소하여 효율적인 전투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선합니다.

3. 전투효율이 높은 무기 및 장비 확보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과 실시간 전장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통합 전투력 발휘가 가능한 지휘통제·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생존성과 신뢰성이 증대된 네트워크중심전 수행능력을 확충합니다. 아울러 장거리 정밀타격과 지·해·공 입체고속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호능력을 보강합니다.



북한 핵·미사일 및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합니다

북한이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1차 핵실험 및 2009년 장거리로켓 발사·2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우리의 작전환경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1.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핵·미사일의 ‘발사준비 → 발사 → 폭발’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고려, ① 감시·정찰 - ② 정밀타격 - ③ 요격 - ④ 방호로 구분하여 전력보강을 추진합니다. 특히, '09년 4월,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우리 군의 대응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갑니다.



* UAV(무인항공기) : Unmanned Aerial Vehicle

북한은 700여 문의 장사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00여 문이 수도권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장사정보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자산으로 표적을 집중 감시·탐지하며, 탐지된 표적은 연합공군 및 전담포병 등 타격전력을 통합 운용하여 실시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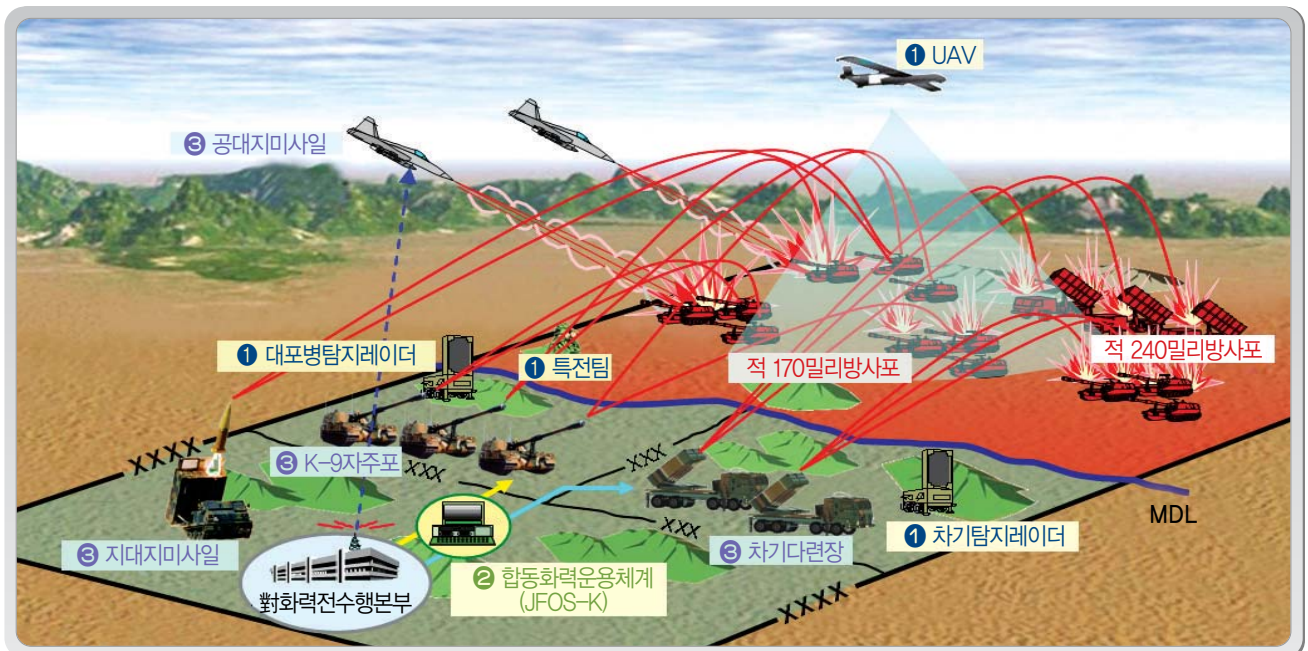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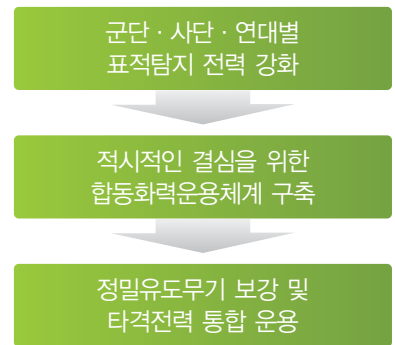
2. 장사정보 위협 대비

장사정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① 표적탐지-② 결심-③ 타격' 을 위한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대폭 개선합니다.

① 표적탐지분야는 미측 정보자산과 한·미의 UAV,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을 적극 운용하고 UAV,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을 추가 확보하여 적 장사정보에 대한 감시·탐지 능력을 확충합니다.

② 적시적인 타격을 위한 결심분야는 대화력전 수행본부 C4I체계인 합동화력 운용체계(JFOS-K)를 구축합니다.

③ 타격분야는 현재 한·미 연합공군과 대화력전 전담포병을 기반으로 지대지 미사일, K-9 자주포, 차기다련장 등 지상화력과 최신 전투기 및 GPS 유도 폭탄 등의 정밀유도무기를 대폭 보강합니다.



*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s & Intelligence
 * JFOS-K(합동화력운용체계) : Joint Fire Operation System – Korea

육군은 부대편성의 완전성을 보장하여 전투력을 강화합니다

미래 지상전투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동시·통합전이 될 것입니다. 육군은 네트워크에 의한 실시간 의사결정 및 표적 타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통제 능력을 보강하고 기동성 및 화력·생존성과 정밀도가 강화되는 부대구조로 발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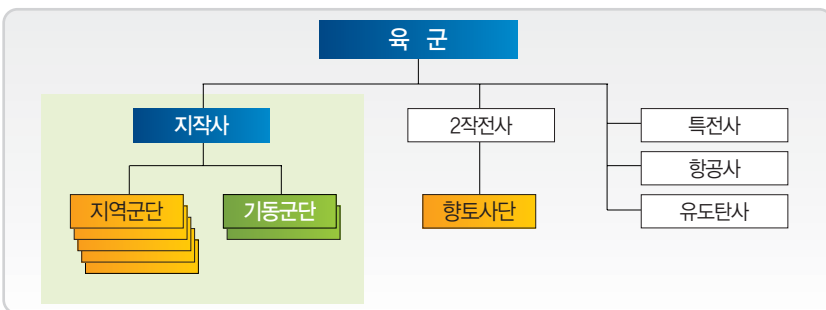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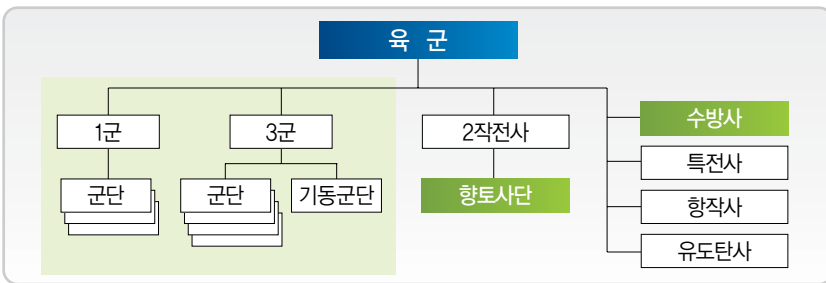
1. 야전군사령부를 해체,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전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신속한 전방지역 작전지휘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1·3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합니다.

2. 전투력 강화를 위한 부대편성 보강

2005년 당시 10개 군단을 현재의 8개(지역 7, 기동 1) 군단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추가적으로 2020년까지 5개의 지역군단(수방사 포함)과 2개의 기동군단 체제로 개편하게 됩니다.

지역군단 개념으로 개편되는 수방사는 수도 서울의 방어임무에 추가하여 전방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기동부대의 전투력 강화

육군의 군단과 사단 수는 조정되지만 각각의 부대는 정보감시능력, 기동력, 화력의 보강으로 제대별 작전능력은 2~3배 증대됩니다.

	2009년	2020년
감시·정찰	제한된 주·야간 감시	주·야간 책임지역 감시
지휘통제	연대급까지 C4체계 구축, 고정형, 저용량 아날로그 통신	대대급 이하까지 C4체계 확장, 이동성 강화, 대용량 디지털 통신
기동·타격	도보·견인·비장갑 위주의 노후된 무기체계	기동력·화력·생존성 및 전장관리 등 작전능력 향상

“지상군의 전력구조는 노후된 구형 장비 위주에서 전투효율이 높은 장비 위주로 전력화하여 기동력·화력·전장관리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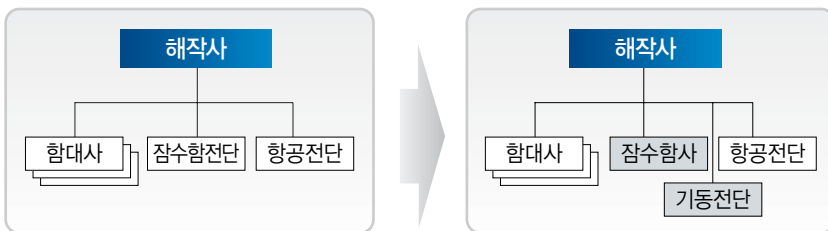
	2009년	2020년
감시정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안, 쌍안경 등 • 군단 UA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안형 야간투시경 등 • 군단·사단·연대 UAV
기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48계열/K-1 전차 위주 • UH-1H, 500M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1A1/K-2 전차 위주 • 한국형 기동·공격헬기
화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5mm/155mm 견인포 위주 • 130mm 다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9/K-55 자주포 위주 • 차기 다련장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합니다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운용능력을 강화하여 근해 방어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및 해양자원 보호 등 전방위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합니다.

1. 부대구조 보강

현 3개 함대사와 잠수함 및 항공전단 체제에서 잠수함사와 기동전단을 창설하여 부대구조를 보강합니다.



2. 전투능력 대폭 증강

북한 및 다양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 가능토록 수상 함정의 수는 줄이되, 중·대형함(차기구축/호위함, 이지스함 등)으로 보강하여 기동형 전력구조로 발전시킵니다. 또한 잠수함과 항공전력은 미래전장에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강합니다.

구 분	이지스구축함 (KDX-III)	잠수함 (KSS-III)
운 용	이지스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으로 대공, 대탄도탄 방어 및 적 전략표적 타격 가능한 구축함	AIPS(공기불요 추진체계)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적 잠수함 탐색 및 공격, 적 기지봉쇄 및 차단 등이 가능한 잠수함
톤 수	7,600톤급	3,000톤급
주요무장	다양한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어뢰, 어뢰, 5" 함포 등을 탑재	임무에 따라 유도탄, 어뢰, 기뢰 등을 혼합 탑재
형상		

기동전단이란?



- 대북억제 및 공세작전, 잠재적 위협 억제 및 거부전력으로서 핵심해역 방어, 해상교통로 보호, 전략목표 타격, 해역함대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 대형수송함(LPH), 구축함(KDX-II/III), 잠수함(KSS-II/III), 해상초계기(P-3C) 등으로 구성합니다.

AIPS (Air Independent Propulsion System, 공기불요 추진체계)

최신 디젤잠수함 추진체계로 잠수함이 외부공기 흡입없이 수중항해 중에도 주동력원인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는 체계

3. 해병대는 여단급 상륙작전 능력 구비

무인정찰기, 다련장포 등 감시·타격 능력과 대형수송함, 차기상륙함, 차기 상륙돌격 장갑차 및 상륙헬기를 증강함으로써 입체고속 상륙기동작전 수행 능력을 구비합니다.



“EEZ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해양통제, 해상교통로 보호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 확보는 물론 원해 기동작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발전됩니다.”

전 력	2009년	2020년
수상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함(KDX-I/II 위주) • 호위함(FF), 초계함(PCC) • 고속정(P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함(KDX-II/III 위주) • 차기 구축함 • 차기 호위함(FFX) • 차기 고속정(PKX)
수중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S-I/II 잠수함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SS-II/III 잠수함 위주
항공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초계기·해상 작전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초계기·해상 작전헬기 • 상륙기동헬기

공군은 공중우세 및 정밀타격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합니다

공군은 항공작전의 효율적인 지휘보장을 위해 조직을 보강하고, 전투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전력을 증강합니다.

1. 조기경보통제기 및 공중급유기 전력화로 작전능력 확대

적의 공중활동을 조기에 탐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며, 전투기의 원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급유기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2020년이 되면 현재의 제한된 지역 타격능력에서 한반도 숲 지역에 대한 타격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 공중급유기

2. 공중전투 수행능력 향상

중·저성능 항공기 위주로 구성된 480여대의 전투기는 2020년까지 High-Low Mix 개념으로 High급 항공기와 Low급 항공기를 최적으로 혼합하여 430대 규모로 정예화합니다. 또한 전략적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밀유도무기를 대폭 증강합니다.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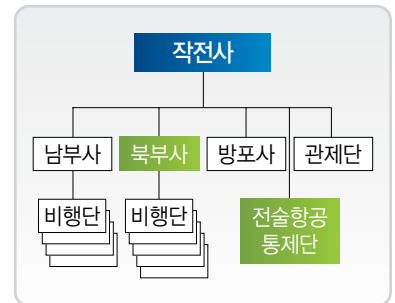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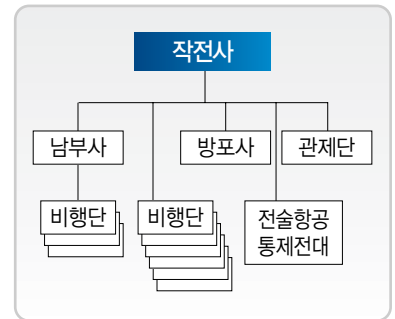
* High-Low Mix란 첨단 및 재래식 전력을 효율적으로 조화시켜 전투력을 유지하는 개념

정밀유도 무기		
구 분	GBU-31(JDAM) (Joint Direct Attack Munition) 합동정밀직격폭탄	GBU-28 (Bunkerbuster) 지하시설 파괴폭탄
운용	적 주요 표적에 대해 전천후 정밀 공격이 가능한 유도폭탄	지하화, 견고화된 주요 전략 표적을 파괴하기 위한 정밀 유도폭탄
장착기종	F-15K, KF-16	F-15K
유도방식	위성항법(GPS)/관성항법(INS)	레이저 유도방식
정확도	13m 이내	3m
형상		

3. 남·북부 전투사령부 체제로 개편, 전술항공통제단 창설

효율적인 전력운용 및 부대관리를 위해 북부전투사를 창설하여 2개 전투사, 방공포병사령부, 관제단 체제로 개편하고, 육·해군의 작전수행 지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술항공통제전대를 '전술항공통제단'으로 증편합니다.

“우리 공군은 전력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현재의 제한된 작전영역을 한반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필수전력을 확보합니다.”



국가위상에 걸맞는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OECD 회원국이자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국제 평화유지를 위한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해 평시에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조직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키워 나갑니다.

1. 적정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준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국제 평화유지활동 참여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1,000여 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준비합니다. 아울러 파병 장기화 및 추가 파병 소요에 대비한 1,000여 명 규모의 예비부대와 다양한 파병임무를 고려하여 군별·병과별 지원부대 1,000여 명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용합니다. 해외파병 상비부대는 평소부터 교육훈련, 임무수행 준비 등을 통하여 적시적인 파병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합니다.

2. 국내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대응부대로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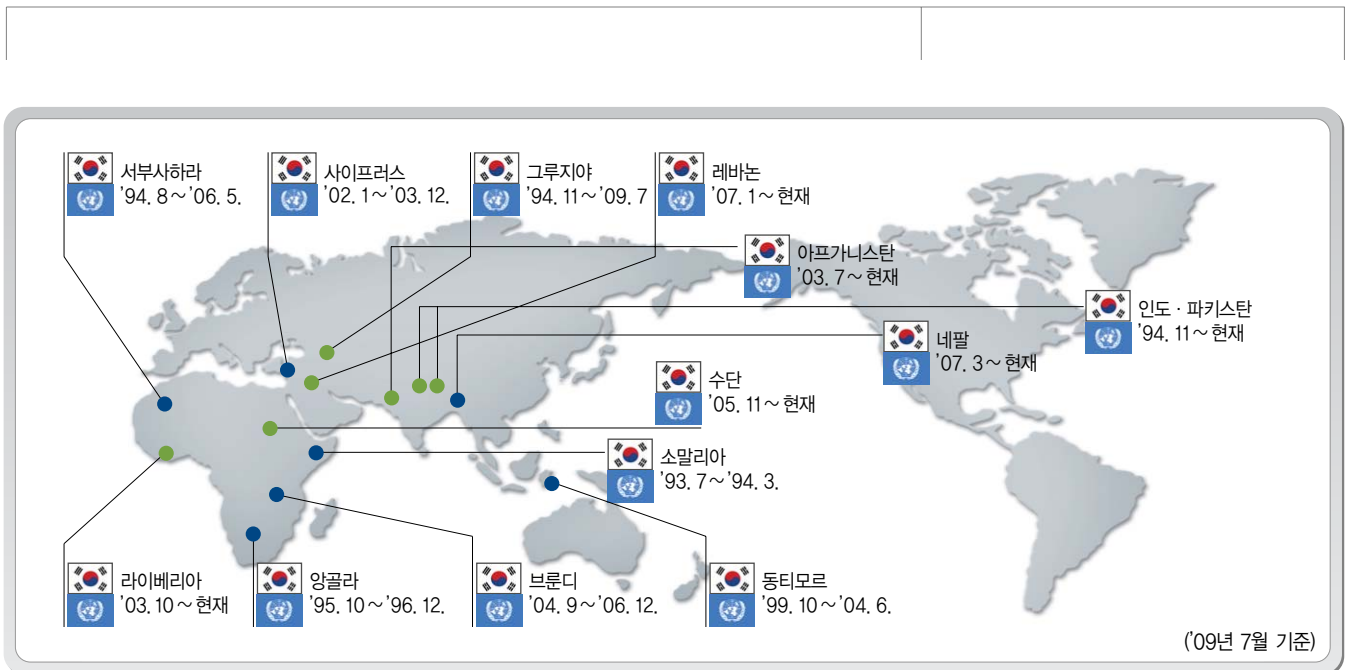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해외파병 상비부대는 파병지역에서 치안유지, 경호, 호송, 감시정찰, 재건지원,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파병소요가 없을 때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 부대로 운용합니다.



Global Korea!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국군

우리나라의 국제 평화유지활동은 UN 평화유지활동(PKO)과 다국적군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다국적 군도 UN의 결의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는다든 점에서 넓은 의미의 UN 평화유지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국제 평화유지활동 적극 참여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UN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지역〉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참여지역〉

Practical & Efficient

PART 3

보다 실용적인

선진 국방운영체제를 갖춥니다

제한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진화된 민간분야의 자원과 경영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국방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More

민간분야의 자원과 경영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 미래의 바람직한 국방운영 모습은 발전된 민간분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비전투관리분야의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경제적인 군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조직과 경영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 ● 이를 위해
국방경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화된 인재양성 및 교육체계를 구축하며,
병영환경 및 복지를 선진화하고,
국방과학기술 기반 및 역량의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Q : 국방운영개혁은 군구조개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A : 군구조개혁이 「Hardware」적 요소라면 국방운영개혁은 「Software」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구조개혁으로 우리 군의 병력규모는 조정되지만 첨단전력을 확보하여 전투력은 대폭 강화됩니다. 따라서 국방운영개혁은 군구조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서 국방운영을 선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① 우수인재 획득·양성, ②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교육훈련 발전, ③ 유사·중복기능부대 통·폐합 및 비전투분야 민간자원 활용 확대 등을 통한 병력 절감, ④ 전 전장요소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통한 전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하여 전투부대의 전투력 향상과 전투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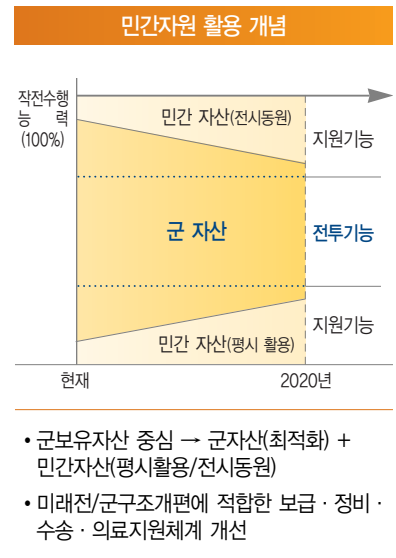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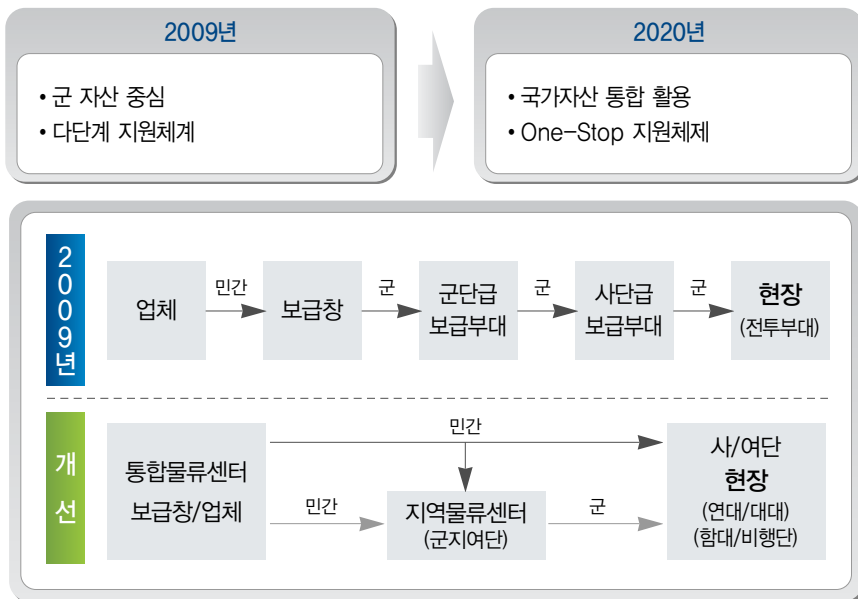
국방자원 및 시설을 경제적으로 운영합니다

국가 총력전 개념 하에 선진화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개방적이고 발전된 경영기법을 받아들여 국방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성을 증대합니다.

1. 우수한 민간자원 활용 확대로 작전지원체제 변혁

군 보유 자산을 중심으로 작전수행능력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는 자족적 체제에서, 군 보유자산은 전투기능 수행에 집중하고, 지원기능은 민간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합니다.

① **보급 및 수송분야**는 군 보급계통의 다단계 지원체제에서 국가물류체계 및 민간 업체를 활용한 One-Stop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물류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재고를 감소시키며 인력 및 장비소요를 절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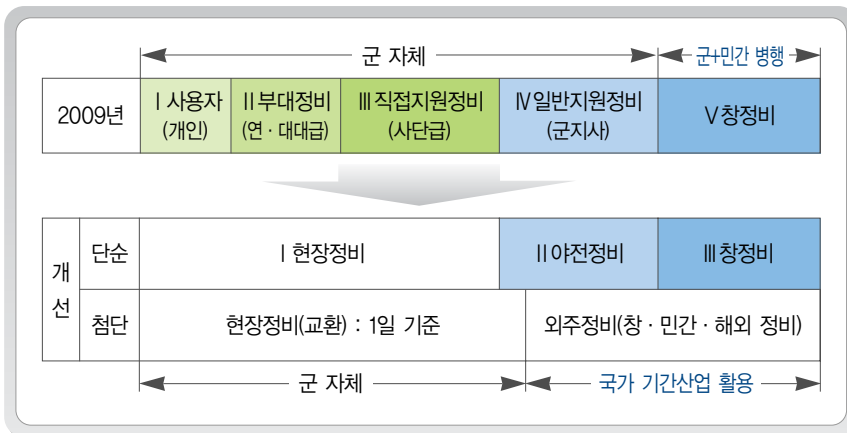
Q :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할 경우 전시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는지요?

A : 전시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 사업 및 부대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투임무 관련성이 적은 업무와 후방 전투근무지원부대 위주로 우선 민간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정비·수송·보급 등 전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은 철저한 타당성 분석을 거쳐 국가동원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정비분야**는 우선 군과 민간의 정비능력을 통합 활용함으로써 정비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외주정비를 확대하여 전투력 발휘 및 가동률은 최고로 유지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방산업체의 가동률 제고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를 위해 성과기반군수지원(PBL)¹⁾제도와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²⁾를 도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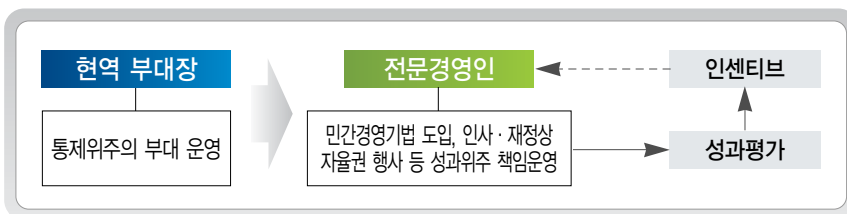
- 단순장비 정비 : 군 자체 실시(5 → 3계단)
- 첨단장비 정비 : 군 중심 → 국가 기간산업 정비체계(2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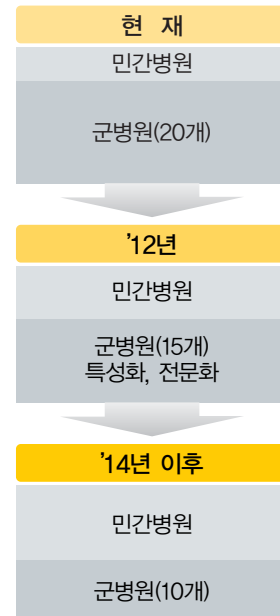
1) PBL(Performance Based Logistics)
2) TLCSM(Total Life-Cycle System Management)

③ **의료지원분야**는 민간의료시설의 활용을 확대하고 군병원은 군구조개혁과 연계하여 구조조정을 해 나갑니다.

④ **민간의 우수경영자원을 국방분야에 적극 영입**하고 민간의 개방적·발전적 조직 문화를 도입합니다.



의료지원분야 변화



※ 국방의학원 건립 추진('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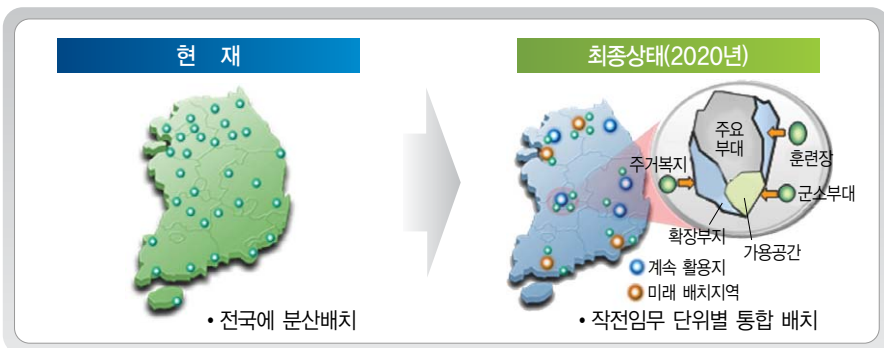
2. 유사·중복기능부대 통·폐합 및 조직 슬림화

각 군의 근무지원 분야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폐합하고, 중간 지휘 계층을 슬림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병력과 예산을 절감합니다.



3. 효율적인 부대 재배치 추진

군구조 개편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군부대를 작전임무 수행여건 보장범위 내에서 대단위로 통합 배치하여 부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부대재배치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이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배치로 발생하는 잉여군용지를 활용하여 소요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전문화된 우수인재 양성체제를 구축하고 미래 지향적인 병역제도로 발전시킵니다

량 위주의 인력충원체계에서 벗어나 질 위주의 인력충원과 장기활용의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정예화된 국방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합니다.

1. 우수인력 충원 및 전문화

産·學·軍이 연계하여 군에서 소요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충원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안정적 획득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합니다.

진정으로 '군인이 되고 싶은 자'가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에 군과 연관된 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장교는 군사학과, 부사관은 부사관학과 및 특수학과를 통해 임관 전에 우수자원을 양성하고, 병은 군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 특기병을 사전 양성하고 있습니다.

간부 선발방법을 개선하고 장교의 양성과정을 통·폐합하며 충원-교육-활용의 맞춤형 전문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능력계발 교육을 실시하여 간부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국방부분부 인력구조를 현역과 공무원이 조화를 이룬 구조로 개편하고, 우수인력 채용, 체계적인 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방업무 수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Q : 맞춤형 전문인력육성이란?

A : 군 입대전에 학교기관에서 군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사전에 교육하여 입대 후 즉각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전문교육과정에서 특수장비·통신 정비기술을 교육받은 후 전자·통신운용 분야 등 정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정비 분야 전문인력으로 복무토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하고, 병역이행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 제도를 발전시킵니다.

2. 예비장교후보생 사전 선발제도 시행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대학 1, 2학년 중에 장교후보생을 사전 선발하는 「예비장교 후보생 사전선발제도」를 2009년 말부터 도입하여 우수자원을 충원합니다.

3. 유급지원병제도

병 복무기간 단축시 확보가 곤란한 전투/기술 숙련인력과 첨단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급지원병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본인의 지원을 받아 의무복무 만료 이후 일정기간을 추가로 복무하고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 시험운영 이후 각 군별 운영직위 및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사회복무제도란?

병역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역 미복무자는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등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고, 점차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환경안전분야이며, 신체 4급 및 신체 5급(면제)자 중 사회활동 가능자 전원이 복무대상입니다.

4. 사회복무제도 도입 및 시행

산업기능요원과 행정지원 분야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는 감축·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을 현역복무와 사회복무로 단순화합니다.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의경, 해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군복무				
산업 기능 요원	현역 자원	대체복무				
	보충역 자원	사회복무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등						
공익 근무 요원	봉사, 보호, 감시					
	행정, 경비					

미래전 양상에 따라 네트워크 기반의 동시·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동작전 수행 능력 및 합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입대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5.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체계 개선

미래의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각 군 중심의 군사교육체계를 개선하여 합동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관학교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고급간부는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합동군사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육·해·공군대학 교육과정에서 3군 통합 교육을 확대합니다.



6.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부대훈련개념 및 훈련장을 재설계합니다.

네트워크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등 다양한 전장에서 전투수행이 가능하도록 고지식·고기술·고능력의 다기능 전투원(Multi-skilled Soldier)을 육성합니다. 국토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상군 훈련장을 통·폐합하여 제대별로 권역화하고, 대대급 규모로 훈련을 실시하는 과학화훈련단을 여단급 규모로 확대 개선하며, 해상종합훈련장 및 국제 군 비행훈련센터를 확보합니다.



■ 과학화훈련장



■ 해상종합훈련장



■ 국제 군 비행훈련센터

Q : 과학화훈련이란 무엇인가요?

A : 마일즈 장비, 데이터 통신, 인공위성 등 첨단과학기술을 통합하여 훈련 부대가 실 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투 환경을 구축하여 실제 전투 상황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훈련으로, 한마디로 피를 흘리지 않고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화 훈련단(KCTC)을 만들어 만족스런 훈련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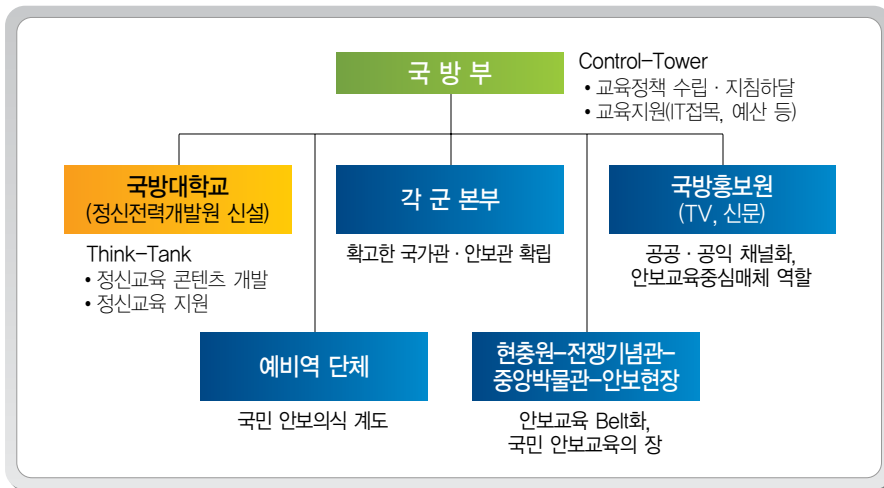
※ KCTC :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7. 장병정신전력 강화 및 국민 안보의식 제고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장병정신전력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장병들이 국가관·안보관·대적관을 확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방부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하달하는 Control Tower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대학교에 정신전력개발원을 신설하여 정신전력의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아울러 범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전쟁기념관-현충원-중앙박물관-안보현장을 연계한 '안보교육 Belt'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하면서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쟁기념관



■ 현충원



■ 중앙박물관



■ 안보현장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장병복지를 구현합니다

열악한 근무·복지 여건을 보완하여 군인의 사기를 고양하고 군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기 위해 복지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군인복지종합대책 수립·추진

지금까지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던 군 복지를 주거, 의료, 취업, 연금, 가족지원, 문화 및 휴양을 연계한 종합적 관점에서 창군 이후 최초로 '군인복지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노후하고 협소한 관사 개선과 부족한 독신숙소 확충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하며 취업 지원을 통하여 제대군인의 재취업 여건을 보장하고, 가족지원센터, 자기계발 등 가족·문화복지를 통하여 민간 수준에 준하는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합니다.



■ 미래 군인 APT

2. 민간 수준의 의료지원서비스 제공

장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차 진료기관인 사단의무대의 진료과를 확대 보강하고, 신형 의무장비 및 구급차로 교체하며, 안락하고 쾌적한 의무시설로 신·개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방의학원 건립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에 따라 절대 부족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수요를 충족하고 군 의료서비스 향상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장병들에게 민간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민간에서 다루지 않는 총상, 화생방, 피부재생치료 등 군 특수의학 분야의 연구와 진료는 물론 SARS, 신종플루 등 국가적 위기대응에도 활용 가능토록 합니다.



병영, 복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우리 군은 아직 군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며 통제 중심의 병영생활과 병영 내 장병 기본권 저해요인이 잔존하고 있어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 장병 기본권 보장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의 군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군’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를 위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을 확대하여 장병 기본권 보장과 함께 합리적인 부대지휘체계를 확립합니다.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법(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추진

군 내 인권침해 사고를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군인의 권익 보장 및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합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 및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2.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과 연계한 병영시설 현대화 추진

사회수준에 비해 노후·열악한 병영시설을 2012년까지 개선하여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병영생활관 개선 내용은?

- 소대 단위 침상형에서 분대 단위 침대형으로 개선
- 1인당 면적 확대(2.3㎡→6.3㎡)
- 화장실, 세면장,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대

과거에는 군 입대와 동시에 학습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복무기간을 '잃어버린 시간' 또는 '인생의 정체기'로 인식하였으나 이제는 군 복무 중에도 학점취득 및 중단없는 자기계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은 물론 군과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형태로 군 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3. 군 복무 중 자기계발 여건 조성

군 복무 중에도 휴무일, 일과 이후 자율활동시간 등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병영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대학의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연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취득한 기술과 한자 및 PC 활용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자격증을 장병 전원이 1개 이상 취득합니다. 이를 위해 군내 검정자격과 필기시험의 면제를 확대하고, 국방자격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Q : 국방자격법이란 무엇인가?

A : 군 복무 중 교육, 훈련, 임무수행 등으로 습득한 기술능력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직접 검정,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자격을 정하는 근거법률입니다.



미래전에 대비한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을 구축합니다

미래전의 양상이 네트워크중심전(NCW) 형태로 전개되고, 저비용·고효율 국방운영체제로의 개혁에 정보화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능화·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1. 전장요소의 상호운용성 확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 양상인 네트워크중심전 수행을 위해 감시·지휘통제·타격체계 등 전장요소간 상호운용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전장관리 및 지휘통제 능력이 강화되어 첨단 무기체계에 의한 통합된 전력 발휘가 가능합니다.

2. 국방정보화 기반 선진화

군별로 분산된 정보화 추진체계를 국방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정보화 종합 설계도인 국방 통합EA를 구축하여 목표지향적으로 국방정보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대용량 군사정보 유통을 위하여 군 통신망을 초고속화하고 국방통합정보관리소를 구축하는 등 국방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합니다.

3.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강화

급속히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방호사령부(가칭)를 창설하여 군 고유의 정보보호체계를 구비하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국방 통합EA(Enterprise Architecture)

국방 조직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업무 전체를 정보화 관점에서 과학적/구조적/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한 국방정보화 종합설계도입니다. 국방정보화 추진시 정보화 소요 및 우선순위 식별, 중복투자 방지, 상호운용성 보장 등을 위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선진화합니다

선진국들은 미래 첨단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독자적인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방연구개발 추진

국방비 중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립니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 을 위해 '친환경 녹색개념' 의 미래 무기체계 개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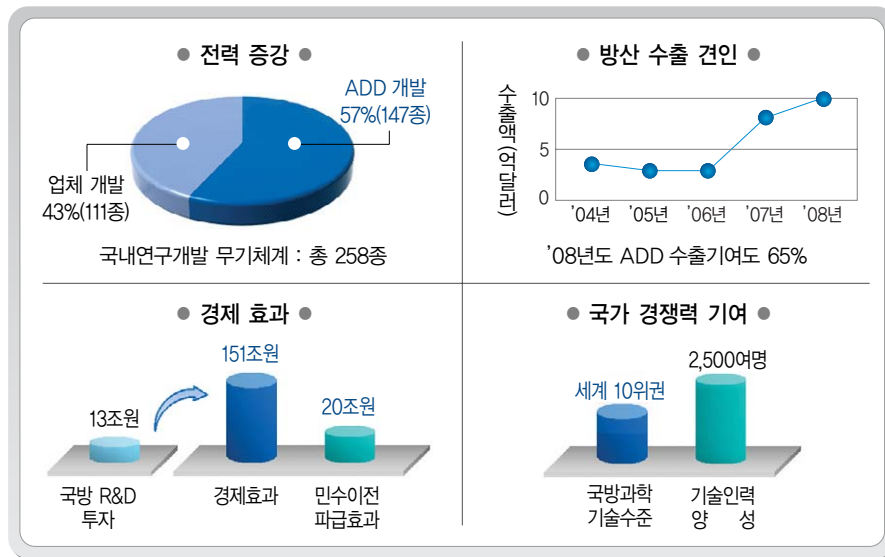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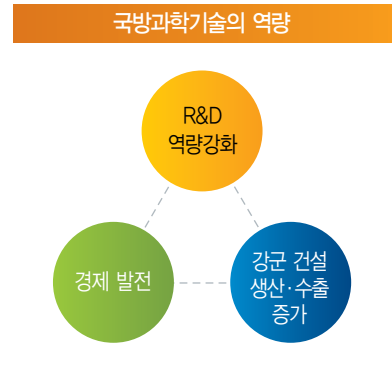
2. 개방형 연구개발 추진

민간의 우수기술을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군의 우수기술은 민간에 이전하여 투자효율성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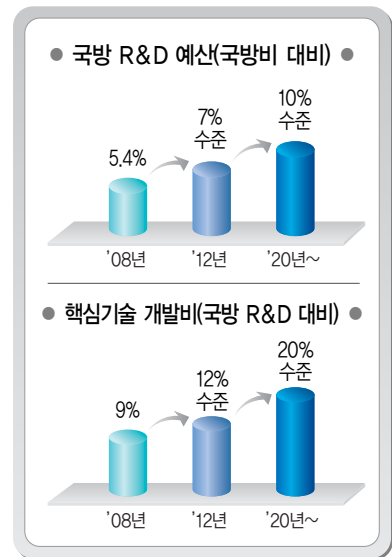
또한, 연구개발에 산·학·연 참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 기술협력 및 공동개발을 확대합니다.

3.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 역할 재정립

국가전략적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수준의 국방과학기술연구소' 로 거듭납니다.



〈ADD 40년 성과〉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합니다

군구조개혁에 따라 상비병력 규모가 조정되므로 동원체제의 발전과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 전시 동원지속능력 보장을 위한 동원체제를 혁신적으로 개선

현대전은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는 국가 총력전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 가용자원을 전시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개발·운영하여 동원물자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합니다. 또한 전방사단에서 대량 손실 발생시 병력+장비·물자+훈련 등을 Package화한 정밀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적기에 대대 단위로 보충함으로써 전방전투부대의 전투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개선합니다.



동원체제 개선		
구분	2009년	2020년
동원사단	• 10개 (2005년 : 12개)	• 4개
전시 보충개념	• 개별 보충	• 부대단위 정밀보충 • 병력+장비·물자+훈련 등을 Package화
전담 관리기구	-	• 동원지원단 신설(향토사단별)
동원물자 관리	• 주무부처별 관리 (미연동)	•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영 * 주무부처별 관리체계 연동

2. 예비군은 2020년까지 적정규모 수준으로 유지

현재 300만여 명의 예비군을 150만여 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었으나, 동원사단 증편, 정밀보충대대, 향토사단 잔류부대 편성 등 동원소요를 고려하여 185만여 명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3. 예비전력의 정예화 추진

예비군을 상비군에 준한 수준으로 무장시키고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동원 즉시 현역과 동일한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동원지원단, 향방대대, 예비군훈련대 등 예비전력관리기구를 신설하여 자원관리와 예비군훈련을 전담합니다. 특히, 연차적으로 예비군 무기를 현대화하고 2020년까지 예비군 전투장구류를 100% 확보합니다. 예비역간부로 편성된 전문 교관을 채용하여 정형화된 예비군 훈련장에서 과학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비군 훈련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합니다.



4. 예비군 훈련제도 및 여건 개선

예비군훈련이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제도를 개선합니다. 예비군 훈련유형을 현재 5개에서 동원훈련과 향방훈련 2개로 단순화합니다. 동원훈련시간은 2016년부터는 3박 4일, 2020년도에는 4박 5일로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동원훈련을 증가하는 것은 상비군이 감축되고 병 복무기간이 단축됨으로 인해 전시 중·창설되는 부대가 즉각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달해야 할 소대~대대급까지의 전술훈련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 동원훈련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가에서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Cyber 원격교육과 서바이벌장비 활용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예비군훈련으로 발전시켜 실전감있고 땀 흘리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구 분	2009년	2005년 기본계획	2009년 기본계획
훈련유형	• 동원, 동원미참자,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훈련	• 동원훈련(동원 지정자), 향방훈련(동원 미지정자)	
훈련시간	• 2박 3일	• 간부 20일, 병 10일 이상	• ~'15년 : 2박 3일 • '16년~'19년: 3박 4일 • '20년 이후 : 4박 5일
훈련내용	• 소집훈련 위주	• 소집훈련+Cyber 원격교육, 서바이벌 장비 등 활용 훈련	
훈련보상비	• 7,000원/일	•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수준(5만원/일)	•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수준 수준(8만원/일)

5. 예비역간부 복무제도 발전

예비역간부 운용을 현재 2개 직급(5, 7급)에서 4개 직급(4~7급)으로 확대하고 승진 제도를 도입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신분은 현재 일반직·별정군무원에서 일반계약직군무원으로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여 선발합니다.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새로운 한·미 동맹군사구조를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갑니다.

국방개혁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1. 국방비 총소요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판단

2005년도의 최초계획에 대비하여, 최대한 합리적·실용적으로 판단하여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존전력 발휘보장, 장병복지 증진, 복핵대비 및 부대개편 필수소요 등은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 조원〉

구분	'05 계획	'09 계획	증감	
계 (평균 증가율)	621.3 (8.0%)	599.3 (7.6%)	-22	
경상비	소계	394.2	389.8	-4.4
	병력운영	242.1	230.3	-11.8
	전력유지	152.1	159.5	+7.4
방위력개선비	227.1	209.5	-17.6	

2. 성공적인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

2005년도 계획에서는 국방비 증가율을 개혁초기에는 9.9%, 후반기에는 1%(평균 8%)로 낮아지는 구조였으나 이번 2009년 계획은 증가율이 연 평균 7.6% 수준으로 고르게 분포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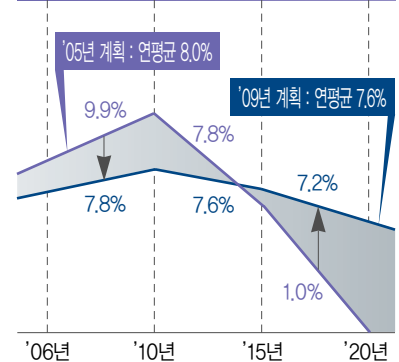
3. 향후 안보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조정

국방개혁 소요재원은 확정적인 재원이 아니고, 장기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획목적상 개략적인 규모를 판단한 추산치이며, 중기 예산 편성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신규 소요 및 변동 사항을 검토·조정할 것입니다.

소요재원 측면에서 '05년 계획과의 차이점은?

부대개편과 복핵 등 안보위협에 대비한 전력소요를 반영하되 육·해·공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위력 개선비를 17.6조원 절감하였습니다. 병력운영비는 병력구조를 효율화한 결과 11.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전력유지비는 당초 부족하다고 판단한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장병 복지증진 등에 중점 반영하여 7.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운영 효율화 가능분야를 집중 발굴하여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국방개혁의 재원확보 추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실용적 선진 국방운영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확고히 뒷받침하고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보완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방개혁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사적 과업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고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진취적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국방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계획은 군의 자발적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개혁, 국민과 함께합니다

발 행 일 2009. 7.

발 행 처 대한민국 국방부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발 행 주 관 국방부 국방개혁실
Tel_02-748-6410 Fax_02-748-6419

디자인&제작 대한기획인쇄 02-754-0765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박수를...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사이버테러·군사보안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7’ 번으로...



DSC
국군기무사령부 www.dsc.mil.kr

www.mnd.go.kr